



11 단계 :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고전 15 : 20 - 28

2012. 3. 7 (수), 3. 10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1. 예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는 “예수”라는 큰 이야기 틀에서 바라보아야 함.
 바울은 이 이야기에 따라 매일 매일 사명을 감당했으며,
 예수와 성령이라는 빛 아래에서 유대인들의 근본 신앙을 새롭게 정립함.

1) “그리스도!”

바울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김.
 바울에게 메시아는 고유명사가 아니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의미함.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뜻함.
 유대인들의 메시아 : 민족적 열망들을 보장해주는 메시아.

2) 대제사장 예수

참된 메시아 예수 :
 히브리서에서 나타난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 (히 4:14).
 이스라엘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목표임.
 위대한 대제사장이 장엄하게 옷을 입고,
 웅장하게 예전을 집행하고 나서
 예배 후에 성소에서 백성들을 축복하심.
 예수는 거룩하고 흠 없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며,
 하늘 위로 높아진 후에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제사의 의무들을 행하신 후에(하늘 성소에서 자신의 피를 드린 후에)

그를 열렬히 기다리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나타나실,
하늘을 통과한 위대한 대제사장 (히 4:14, 7:26, 8:1, 9:28).

2. 선교 여행

지중해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수정하고 전복함.

1)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한 분 하나님, 선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에 의해 세상이 창조됨.
아담과 하와의 창조, 타락, 노아로 이어짐.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세상 전체와 관련되어야 함을 말함(롬 4:13).

2) 믿음의 조상들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계승자들이며 이스마엘과 에서는 배제됨.

그러나 이러한 축소의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의 주장과는 달리)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됨.

3) 모세와 토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토라를 수여함. 여기서 토라의 수여는 이스라엘을
죄로 정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구속 받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버
림받는다는 것으로 말함(롬 9:14-29).

토라에 가장 충성된 종들도 아담의 죄에 동참했다고 말함 :
이스라엘의 최고의 경지는 이교 철학자들의 최고 경지에 불과함
(롬 7:7-21).

4) 바벨론 포로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삶과 죽음, 번영과 포로생활을 제시하고,
그런 다음에(신명기 30장) 그러한 포로생활/죽음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해 말함.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죽음을 선택함.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했으며 실제로 일어남.

5)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귀환

이러한 포로 생활의 끝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땅의 평화, 성전 재건, 토라 강화)이 아님. 그 참된 의미는, 예수가 이교도의 손에 저주를 지고서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끝이 남.
예수가 부활했을 때 포로생활로부터의 귀환이 시작됨.

6) 성령의 역사

부활 후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남.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임함.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으로 뻗어감.
인종과 계층, 남녀 차별이 없는 새로운 백성이 태어남.
완전한 성취는 미래에 일어남.
종말은 이미 왔고 미래에 완성될 것.
고전 15장 :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말함.
피조물 전체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데서 해방될 것.
출애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모형이었고,
더 큰 출애굽을 가리킴.

